

「이별가」 _ 박목월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뫼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뫼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믄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뫼락카노 뫼락카노
 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뫼락카노 뫼락카노 뫼락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뫼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 박목월, 「이별가」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생사를 초월한 인연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이승의 세계에 있는 화자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공간인 강을 중심으로, 강기슭에서 '뫼락카노'라는 말을 반복하며 저승의 세계에 있는 지인과 소통을 시도한다. 하지만 화자와 죽은 지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불리고 날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화자는 인연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화자는 '하직을 말자'라는 말을 통해 죽은 지인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한다. 바람에 불려 죽은 지인의 목소리가 화자에게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화자는 그의 목소리에 '오냐. 오냐. 오냐.'라고 답하며 삶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인연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화자는 생사를 초월하여 이승이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그들의 인연을 이어 가려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 1, 2연: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느껴지는 거리감
- 3연: 점점 사라져 가는 인연을 확인함.
- 4연: 생사를 초월하여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소망
- 5, 6연: 이승과 저승 사이에 인연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함.
- 7연: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라도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소망
- 8, 9연: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초월한 인연

✓ 주제 : 지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생사를 초월한 인연

- ① 일부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동일한 시어나 시구('뫼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이승 아니믄 저승',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오냐')를 반복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강기슭'은 이승에 있는 화자가 건너갈 수 없는 저편, 즉 저승에 위치한 곳으로, 잘 들리지는 않지만 망자가 이승에 있는 화자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강기슭'은 저승에 있는 망자가 이승에 있는 화자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다.
- ④ 이 작품은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그리움과 처절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모두 저승에 있는 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지만, 이승과 저승의 세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지인의 죽음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 ⑤ 화자가 '뫼락카노'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행위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단절된 세계 사이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 ⑥ '바람에 불려서'와 '바람에 날려서'는 이승에 있는 화자와 저승에 있는 지인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 ⑦ '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에는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
- ⑧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에는 죽은 지인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화자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다.

[THE - 깊은 독해]

뫼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 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 강기슭에서 누군가 화자를 향해 말을 했는데, 화자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다. '뫼락카노'라는 방언을 통해 향토감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때 '뫼락카노'는 '뫼라고 하는 거야'의 사투리이다. '강기슭'은 강물에 잇닿은 가장자리의 땅으로, 이 작품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가르는 강의 기슭을 뜻한다. 해당 행에 서는 저승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다.

니 뫼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 '너 뫼라고 말한 거냐? (목소리가) 바람에 불려서 (안 들리네.)'라는 의미이다. 바람이 '너'의 목소리를 날려버려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불리다'는 곡식 따위를 바람에 부쳐서 필요 없는 것을 없애 버린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날아가버렸다고 이해하면 된다.) '너'라는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바람'은 청자와 소통이 안 되는 이유에 해당하며, 화자와 청자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화자의 청자 사이의 거리감이 나타난다.

이승 아니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 1연에서 강을 사이에 둔 상황이 이승과 저승으로 나뉜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 이때 (강 위의) 뱃머리는 화자의 현재 위치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1연의 '저편 강기슭'은 죽음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 화자 '나'가 제시되어 있다. '너'의 목소리만 화자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 '저편 강기슭'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람'은 화자와 '너'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 대상이며,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는 상황은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나타낸다. 1연의 '바람'과 구분을 하자면, 1연의 '바람'은 죽은 이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이며, 2연의 '바람'은 화자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이다. 또한, '너'의 목소리는 바람에 '불려서', '나'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서'라고 표현이 구분되고 있다.

▶1, 2연 : 이승과 저승 사이의 거리감

뫼락카노 뫼락카노

→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상황임을 2회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 '동아뱃줄'과 같은 화자와 '너'의 관계가 이승과 저승으로 나뉜 것을 ('씩어서) 삭아 내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때 '동아뱃줄'은 굳은 인연 혹은 이승에서의 인연을 뜻한다. '삭아 내리는데'라는 표현은 인연의 소멸을 의미한다. 즉, 화자와 '너'의 인연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3연 : 인연의 소멸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 화자는 '너'와 하직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하직'은 어떤 곳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승에서는 하직한 상태이다. 즉, 이별에 대한 거부 의 태도를 반복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 '인연'은 위에서 언급된 '동아뱃줄'의 원관념이다. 여기서 인연이 갈대밭을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한 것은 비유적 표현(은유)을 통해 인연이 허무하고 속절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바람'은 허무함과 덧없음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또한, '바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다. 앞에서의 '바람'은 부정적인 뜻을 가졌지만, 여기서는 '인연'의 뜻을 가지게 된다.

뫼락카노 뫼락카노 뫼락카노

→ 목소리를 더욱더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와 '너' 사이의 거리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앞에서는 2회 반복했던 '뫼락카노'를 3회 반복함으로써(점층적 반복) 단절감과 안타까움의 심화를 드러낸다.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 흰 옷자라기만 펄럭이는 상황이다. '흰 옷'은 흔히 수의를 뜻할 때가 많다는 점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있는 상황은 삶의 덧없음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볼 수도 있다.

▶4, 5연 : 이승의 인연의 소멸로 인한 안타까움

오냐, 오냐, 오냐

→ '오냐, 알았다.'는 의미로, 죽음에 대한 수긍과 체념하여 망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상황이다. (마음으로 죽은 이의 말을 알아들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승 아니문 저승에서라도……

→ '저승에서라도'라는 표현은 이승의 인연은 끝났지만, 저승에서라도 인연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승 아니문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바람'은 이승과 저승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에 해당한다.

▶6, 7연 : 죽음의 수용과 인연의 지속에 대한 소망

뫼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 ‘저편 강기슭’은 1연에서처럼 죽음의 세계(저승)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승의 ‘나’와 저승의 ‘너’가 서로에게 말을 건네며 소통을 시도하는 공간으로, 이승과 저승 사이가 가장 가까운 수평적 공간을 의미한다.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 여기서 ‘바람’은 화자와 죽은 이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후술)

오냐, 오냐, 오냐

→ ‘너’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 6, 7연에서 죽음 상황을 수용하고 저승에서라도 인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냄으로써, 8, 9연에서는 죽은 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8, 9연의 ‘바람’은 1, 2연의 ‘바람’과 달리 죽은 이와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8, 9연 :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인연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화자 ‘나’가 길으로 드러나 있음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이]
- 상황 : ‘너’와 대화하려고 하지만 잘 들리지 않는 상황 [죽은 이를 떠나보내며 이별의 정한을 느낌]
- 정서·태도 : 그리움, 안타까움, 인연 지속에 대한 소망

[연 관 - 기 출 문 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뒹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뒹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뒹락카노 뒹락카노

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뒹락카노 뒹락카노 뒹락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뒹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 박목월, 「이별가」-

(나)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다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당신이 올 때면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덜난 몸통이 갈가리 찢어지고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컥벌컥 물사발 들이켜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잃었어, 뺏아 낼 테지만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땀길 일 막막합니다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막만 한 손으로 뺏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 구르는
당신

- 이성복, 「꽃 피는 시절」-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②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부정적 상황이 해소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특정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와 자연물 간의 친밀한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가)와 (나)의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나'는 '니'가 자신과 점차 멀어짐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고, (나)의 '나'는 '당신'이 자신 가까이 있음에 위로를 받고 있다.
- ② (가)의 '나'는 '니'와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려 하고 있고, (나)의 '나'는 이별 후에 다시 '당신'을 만나는 것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나'는 '니'와의 단절감을 느끼고 이별을 수용하고 있고, (나)의 '나'는 '당신'이 '나'를 모른다는 이유로 이별을 수용하고 있다.
- ④ (가)의 '나'는 '니'와의 이별을 인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견뎌 내고 있고, (나)의 '나'는 '당신'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데 힘들어하고 있다.
- ⑤ (가)의 '나'는 '니'와의 소통과 만남을 방해하는 것을 극복하고 있고, (나)의 '나'는 멀리서나마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줄기와 꽃의 관계를 바탕으로 꽃이 피는 과정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시에서 꽃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개화에 대한 능동적 의지를 품은 존재이다. 이러한 꽃이 줄기에서 벗어나 개화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에서 개화는 자연의 섭리에 따른 필연적인 것으로,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이 시에서는 개화의 순간에 줄기가 겪는 고통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시의 '꽃 피는 시절'은 아름다움만 있지 않고 아픔이 있는 계절이다. 이는 아름다움의 이면에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 ① '당신'이 '추운 땅속을 헤매다' '누군가의 입가'의 '잔잔한 웃음'이 되려 했다는 것은 꽃이 시련 속에서도 개화에 대한 의지를 지니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부르'거나 '생각'하거나 '꿈꾸지' 않아도 '당신'이 온다는 것은 개화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당신이 올 때'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든다는 것은 꽃이 피는 것이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당신이 떠나갈 때' '나'가 '갈라지고', '터지고', '갈라리 찢어'진다는 것은 개화의 순간에 줄기가 느끼게 되는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부서지고 무너지며',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불탄 살가죽 뚫고'는 고통과 희생이 있어야 개화를 통해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③

③ (가)는 '나'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의 경우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그와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 ② (가)의 경우 '뒹락카노'와 같은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심화됨을 드러내고 있다. 부정적 상황이 해소됨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나)의 경우 '당신은 옵니다', '당신' 등의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을 통해 부정적 상황이 해소됨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④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나)이다. (가)는 의인화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⑤ (가)에서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2.

[정답 SCAN] ④

④ (가)의 '나'는 '나'와 이별을 겪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나'는 인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견뎌 내고 있다. 이별로 인해 강 저편에 있는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화자는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라고 되뇌며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라고 말한다. 이는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매개로 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한 것이다. 화자는 인연이 끊기지 않을 것 이란 믿음을 바탕으로 이별의 상황을 견뎌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당신'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의 '나'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나'는 '당신'이 '추운 땅속을 헤매다' 와서 꽃을 피우는 것에 힘들어하고 있다. (나)의 '나'가 '당신'이 자신 가까이 있음에 위로를 받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가)의 '나'는 생사를 초월해 인연을 이어 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의 '나'는 '당신'과 이별하는 것으로 인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 ③ (가)의 '나'는 이별의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나)의 '나'는 이별의 상황 자체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의 '나'가 '당신'이 '나'를 모른다는 이유로 이별을 수용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 ⑤ (가)의 '나'는 '나'와의 소통과 만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것을 견뎌 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나'는 '당신'과 이별할 일에 대해 막막해하고 있다. (나)에서 '나'가 멀리서나마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

[정답 SCAN] ⑤

⑤ '부서지고 무너지며',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불탄 살가죽 뚫고'는 개화할 때 '나'가 느끼는 고통, 아픔을 형상화한 것이다. 개화는 '나'에게 곧 아픔, 고통인 것이다. 이를 개화를 통해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당신'은 '추운 땅속'에서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한 존재이다. 이는 '당신', 즉 꽃이 시련 속에서도 개화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는 존재임을 나타낸다.
- ② 화자는 '당신'이 '부르지 않아도', '생각지 않아도', '꿈 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당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화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③ '먼발치 마른 흙더미라도 고개를 든'다는 것은 개화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낸 것이다.
- ④ '당신이 떠나가'는 것은 개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개화를 할 때, '나', 즉 줄기는 '갈라지고', '터지고', '갈가리 찢어지게 될 수 있다. 이는 줄기가 개화의 순간에 느끼게 되는 고통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